

글레버(대학생 장학생)용  
**하반기 활동보고서**

이름	이효진	담당	S&J 희망나눔
활동기록	봉사 활동	토요특강 보조교사	28차시

**1. 하반기 재능기부 활동(토요특강 보조)을 통해 느낀 점은?**

하반기 때도 상반기 때 가르치던 아이들을 이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토요 특강 보조를 하게 되었다. 좀 아쉬웠지만, 상반기와 다르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부담은 훨씬 덜했다. 또 초등학생 아이들과 다르게 하반기에 맡게 된 중학생 아이들은 어른스러워서 통솔하기가 수월했다. 또 심재신 선생님께서 매 특강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오신 덕에 일본, 오사카에 대해서 역사, 지리, 인물 등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토요 특강이 된 것 같다. 또 심꽃다비 선생님과, 권성애 선생님도 이 특강을 위해서 토요일까지 나오셔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보조 교사로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 많은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하반기 활동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2.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재능 기부 활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다. 재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발휘해야만 진정한 '재능기부'의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능 기부는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미용사의 무료봉사, 변호사의 무료 변호 등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능 기부 비해서 교육 재능 기부는 그 효과는 조금 늦게 나타날지 몰라도 큰 그림을 본다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S&J 글레브 장학생으로서 본인의 외국어 학습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선 8월 달부터 6주간 일본 후쿠오카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 전에 치뤘던 JLPT 시험도 최고 급수인 1급을 합격했고, 어학연수 후에는 JPT 점수가 300점 가까이 올라서 990점 만점인 시험에서 910점을 받게 되었다. 글레브 장학생 활동을 시작하면서 결심한 어학 능력 향상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 다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을 많이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4. S&J 글레브 1기로서 2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보상에 약하니까 적절한 보상을 주면 잘 따르고 수업도 잘 들을꺼예요. 1학기 동안 힘들었지만 다 끝나고 '이효진 선생님이 또 왔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말이 그간의 고생을 다 녹일 만큼 큰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어려운 기회 잡으신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